

## 東武와 蘆沙의 思想的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고찰 -理氣관계를 중심으로-

이준희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A discussion on the philosophical associations between Dongmu (東武) and Nosa (蘆沙): an approach based on the Li-Qi (理-氣) theory

Jun-Hee Lee, Eui-Ju Lee, Byung-Hee Koh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1. Objectives

This study reviews the general theory on Li-Qi (理-氣) found in Dongmu Lee Jema (東武 李濟馬) and Nosa Gi Jeongjin (蘆沙 奇正鎭)'s works and explore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ir philosophical systems.

#### 2. Methods

The main ideas on Predisposition (氣稟論) found in Dongmu's works were explored in connection with the Li-Qi (理-氣) theory and compared with the perspectives suggested by Nosa.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Nosa criticized the "weakened supervision of Li (理)" and the "separation of Li (理) and Qi (氣)", proposing that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through "mutual embracement of Li and its manifestations (理分圓融 理分相涵)".
- 2) When Dongmu's theory on Predisposition (氣稟論) is interpreted in terms of Li-Qi (理-氣), the Seong-Li (laws governing the organ scheme) (性理(臟理)) represents the Li (理) while the formational variations in organ scheme (臟局短長) and the level of self-cultivation (心地清濁) represents the Qi (氣).
- 3) The concept of "Diversification of Li (理之異)", bearing similarities to Nosa's Li-Qi (理-氣) theory,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Dongmu's theory on Predisposition (氣稟論), which presumably built the fundamental theories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Typology.
- 4) Within Dongmu's theory of Predisposition (氣稟論) can be found a dichotomous division of "similitude between the morally unaccomplished and the morally accomplished" in the ontological plane and "dissimilitude between the morally unaccomplished and the morally accomplished" in the axiological plane; this dichotomy is more extensive and developed compared to Nosa's attempt to find a consistent logic in both the ontological and axiological plane through a Li-Qi (理-氣) structure with Li-predominance.

**Key Words:** Dongmu Lee Jema (東武 李濟馬), Nosa Ki Jung-jin (蘆沙 奇正鎭), Li-Qi theory (理氣論), Theory of Li and its manifestations (理一分殊說)

## I. 緒 論

『格致藁』, 『東醫壽世保元』 등을 저술하여 四象哲學論을 제시하고, 四象醫學論을 확립한 東武 李濟馬(1837-1900)는 蘆沙 奇正鎮(1798-1879)과 직접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신보다 39세나 연상인 조선 후기의 巨儒인 蘆沙 奇正鎮을 전남 장성으로 찾아갔던 사실들”이 있으며, 30-40대 초반까지 교유하면서 유학에 대하여 토론하였다고 전해진다<sup>1,3</sup>.

蘆沙는 鹿門 任聖周(1711-1788), 寒洲 李震相(1818-1886) 등과 더불어 朝鮮 後期 性理學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蘆沙는 당시 ‘理一分殊說’에 대해 人物性同異論爭<sup>1)</sup>을 거치면서 理一分殊를 지나치게 분석하여, 理氣를 두 가지 존재로만 분석하게 되는 폐단이 있고, 그 근본 원인이 栗谷 李珥의 학설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재정립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理로부터 氣로 접근해 들어가는 ‘理上言之’의 방법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sup>. 특히 蘆沙는 당시 학계에서 제기된 ‘理氣관계의 顛倒’<sup>2)</sup>, 그리고 ‘理分相離’<sup>3)</sup>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理氣의 전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理分圓融의 관점을 제시하여 理分相離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하였다<sup>5</sup>.

東武 四象醫學論에 있어 중요한 논지 중의 하나

- 1) 巍巖 李柬(1677-1727)과 南塘 韓元震(1682-2751) 사이의 논변으로부터 촉발된 人物性同異論爭은 人物同과 人物異의 本然之性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理一分殊說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성리학에서 理는 氣와 不相離, 不相雜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所以然과 所當然의 지위를 가진다. 理는 곧 本然의 성이요, 性善의 성이다. 不相雜의 관계만을 주장하면 理는 홀로 허공에 매달린 것이 되어 本然이 될 수 없고, 不相離의 관계만을 주장하면 理는 理弱氣強의 현상 속에 매몰되어 性善으로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된다. 당시 인물성동이논쟁이 심화되면서, 有形有爲의 氣를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절대성을 가진 理가 分殊상에서 그 本然之性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자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氣에 의해서 理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3) 理一分殊를 지나치게 분석하여, 理氣를 두 가지 존재로만 치우쳐 보는 현상으로, 理氣不相離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초래되었다.

는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 몸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까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질적 차이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들어 가는데 있어, 東武의 思想的 淵源을 탐구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그간에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sup>3,6,9</sup>. 그런데 東武가 朝鮮性理學에 상당한 조예가 있고 그것을 그의 醫論전개에 이론적 방법론으로 삼았다는 전제하에, 그의 四象哲學論 및 四象醫學論은 朝鮮性理學의 발전사 가운데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東武의 氣稟論에 대한 思想的 淵源을 궁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 출발점으로 東武와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蘆沙와의 思想的 연계를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논자는 東武 四象體質論에 대한 理氣論的 해석,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蘆沙 학설의 특징을 검토하여, 그와의 思想的 연계를 찾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東武 四象體質論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sup>4)</sup>.

## II. 研究方法

1. 蘆沙와 東武의 理氣論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주요 논점이 되는 理氣論과 理一分殊說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선행연구<sup>4,10-14</sup>를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2. 蘆沙의 중요 이론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sup>4,5,11</sup>와 그의 저작인 『蘆沙集』<sup>15</sup>의 내용을 일부 검토하였다.
3. 東武의 중요 이론은 『格致藁』, 『東醫壽世保元』<sup>16</sup>을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 III. 本 論

### 1. 理氣論과 理一分殊說

- 4) 心性論을 理氣論의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心·性·情 등 心性論 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理氣論 그 중에서도 理氣관계에 대한 내용을 그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며, 東武 哲學思想에 관한 내용도 그의 氣稟論을 주로 하여 분석하였다.

## 1) 理氣論

理氣論은 송대 性理學의 근간으로 자연관과 인간관 또는 존재론과 가치론을 망라하는, 철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개념이 된다. 朝鮮 儒學의 理氣論은 송대의 程頤와 朱熹가 집대성한 理氣論을 기반으로 이를 心性論과 깊이 연관시키며 심화 발전하였다. 특히 ‘원리’·‘법칙’[理]과 ‘질료’·‘에너지’[氣]라는 한 쌍의 상대적 개념을 기반으로 치밀한 사고와 논쟁의 전개를 통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sup>11</sup>.

朱熹는 세계를 운동하고 변화하는 현상계[氣]와 그 형이상학적 근거가 되는 원리의 세계[理]라는 이중 구조로 파악하려고 했다. 최<sup>13</sup>는 理와 氣의 개념을 사실과 가치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① 사실의 측면에서 理는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 양상을 규제하는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되며, 사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운동하도록 통제하는 법칙이다. 氣는 사물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질료이며, 에너지이다.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운동변화하는 모든 것은 氣이며, 그 존재 원리와 운동법칙은 理가 된다. ②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理는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선이며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도덕법칙인 반면에 氣는 무수하게 차이가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理와 氣는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섞이지도 않는 관계[不離而不雜]에 있다. ‘분리되지 않음’[不相離]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섞이지 않음’[不相雜]은 理와 氣가 형이상과 형이하, 그리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라는 각각의 독자적 영역을 가지며, 기의 상대적 가치가 리의 순수한 절대 가치를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理一分殊說

理一分殊說은 理氣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의 당위적 질서를 理를 중심으로, 일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性理學의 이론체계이다. 이는 程頤(1033-1107)가 처음 제시하였고, 朱熹가 자신의 理氣 철학에 적극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理一分殊에서의 ‘一’과 ‘分殊’는 각각 보편과 특수(또는 개별)의 의미를 가지며, 理一分殊說은 ‘一理’와 ‘萬理’의 관계를 논함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朱熹는 ‘천지만물을 합하여 말하면 단지 하나의 理일 뿐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또 각각 하나의 理가 있다’고 하였다<sup>5</sup>). 즉 천지만물을 종합하여 그 궁극에 있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理(理一之理)이고, 理가 사람에게 내재할 때에는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理(分殊之理)를 갖는다. 理一之理는 理의 일관성, 공통성, 보편성을 가지고, 分殊之理는 理의 개별성, 특수성을 가리킨다<sup>10</sup>.

朱熹는 理一分殊의 개념을 다음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삼고 있다. 첫째, 그는 우주 본체로서의 太極과 萬物의 性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理로서의 太極은 우주의 본편 법칙이자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며, 일체 만물은 모두 이 理를 품부받아 性을 이루고 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둘째, 本源과 派生の 관계를 논하고 있다. 본원상에서 太極은 萬物의 궁극적 본원이고, 먼저 이 理가 있고 난 후에 氣가 있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 萬物이 있게 된다. 萬物의 理는 모두 궁극적 본원으로 작용하는 太極이며, 모두 본원의 太極과 같다. 셋째, 보편법칙과 특수법칙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보편원리는 구체 원칙으로 표현되며 구체 원칙은 보편원리를 꿰뚫게 되고, 일반은 개별 속에 있고, 동일성을 차별성으로 표현된다. 이는 理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물의 구체적 理가 서로 차별적임을 인정하지만, 理一이 각각 부동한 分理를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라 는 말이다. 넷째, 理와 事物의 관계를 논하였다. 分殊는 사물의 차이를 가리키지만, 理 자체는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萬物이 모두 天地의 理를 품부받아 本然之性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sup>12</sup>. 이상에서 朱熹는 理一分殊의 개념을 통해 현실 세계 속의 보편법칙과 사물의 구체 법칙, 윤리적 보편 원리와 구체적 규범과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朱子語類』卷1「理氣上·太極天地上」, “理一分殊 合天地萬物而言 只是一個理 及在人 則又各有一個理”

## 3) 조선 성리학에서의 理一分殊說의 발전과 문제점

조선 후기에 발생한 湖洛論爭<sup>4</sup>은 조선 전기의 四端七情論爭과 함께 중국의 성리학을 조선의 성리학으로 토착화시키고 儒學思想을 한 단계 발전,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湖洛論爭은 크게 人物性同異論爭, 未發心體純善論爭, 聖凡心同異論爭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 人物性同異論爭은 사람과 타 존재의 본성간의 同異문제를 다룬 것이고, 聖凡心同異論爭은 보통사람들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으나에 대한 것이다. 湖洛論爭을 촉발하고 이 논쟁에 적극 참여한 학자들은 栗谷계열의 老論학자로, 湖洛論爭은 老論학계의 사상적 분화를 반영하는 논쟁으로 평가된다<sup>4</sup>.

人物性同異論爭은 人物同과 人物異의 本然之性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理一分殊說과 깊은 관련이 있다. 理가 기질에 내재된 이후에 性개념이 성립된다고 할 때, 이 性을 理一의 측면을 강조하여 논하면 人物性同論이 도출되고, 分殊의 측면을 강조하여 논의하면 人物性異論이 도출된다. 人物性同異論者들은 栗谷의 학설을 계승한 학자들이다. 栗谷은 理를 無形無爲한 속성을 가지며 有形有爲한 것[氣]의 主가 되는 존재로, 氣를 有形有爲한 속성을 가지며 無形無爲한 것[理]의 器가 되는 존재로 보았다. 이때의 理無形, 氣有形的 측면은 理通氣局으로, 理無爲, 氣有爲의 측면은 氣發理乘一途說로 강조되어 드러난다<sup>4</sup>.

특히, 栗谷이 제시한 理通氣局說은 ‘理는 두루 통하고 氣는 局限된다’라는 것으로 程朱 性理學에서 ‘理一分殊’로 설명된 理氣 관계를 새로운 설명방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氣는 원래 湛一清虛한데 流行과정 중에 本然의 성질을 잃은 경우가 있고, 이때 그 본래의 성질을 잃으면 氣의 본래 특성은 사라지고 全氣, 清氣, 湛一清虛의 氣가 아닌 偏氣, 濁氣, 糟粕煨燼의 氣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理가 만물 어디서나 本然之妙로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이것을 氣局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理는 氣의 偏全, 清濁粹駁에 따라 氣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그 本然

之妙는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라고 하여 ‘理通’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존재 변화하면서도 동일성,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氣의 동일성 때문이 아니라 理의 ‘通’ 때문이고, 理가 다양성을 갖는 것(理之萬殊)은 氣의 국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11</sup>.

그런데, 氣局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通은 理에만 속하고 局은 氣에만 속하는 것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고착화는 理一이 氣局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分殊상에 本然之性으로서 온전히 자재하지 못하는 면을 발생시키게 된다. 즉 分殊에서 理는 氣의 제약을 받게 되어 그 主宰性을 상실하게 된다[理氣관계의 顛倒]. 또한 理通氣局의 고착화는 理는 通이므로 同의 속성을 가지고, 氣는 局이므로 異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理와 氣를 ‘理同氣異’로만 보는 면으로 연결되어 理氣를 둘로만 보는 것[不相雜]에 치우쳐 理氣의 균형적 조화가 상실되게 된다[理分相離]. 이 같은 문제는 蘆沙, 鹿門 등이 당시 人物性同異論者들이 가지는 병폐로 진단하게 된다<sup>4</sup>.

## 2. 蘆沙의 理氣論 고찰 및 평가

蘆沙는 鹿門 등과 더불어 당시 학계에서 제기된 ① 理氣관계의 전도, ② ‘理一之理’와 ‘分殊之理’의 상호분리[理分相離]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蘆沙는 理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理와 氣의 상관성을 해명하여 理氣의 전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러한 理氣論을 바탕으로 ‘理一之理’와 ‘分殊之理’의 개념을 ‘理分圓融’, ‘理分相涵’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여 ‘理分相離’의 병폐를 해결하고 있다<sup>5</sup>. 이를 위한 蘆沙 이론 전개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理의 主宰性和 能動性的 강조

- ‘氣의 자기원인적 능동성을 부정한다.’

당시 氣의 자기원인적 능동성은 ‘其機自爾’와 ‘非有使之’<sup>7)</sup>로 표현된다. 이는 花潭 徐敬德의 사

6) 洛論의 巍巖 李東(1677-1727)과 湖論의 南塘 韓元震(1682-1751)사이의 논변으로부터 촉발됨.

7) 栗谷은 『栗谷全書』卷10 『答成浩原』에서 ‘氣發而理乘

상을 이은 것으로 감각할 수 없는 先天의 氣가 後天의 구체적 현실계로 전개되는 所以然을 氣 자체의 자기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理를 ‘氣之宰’로 보지만, 이것은 외적인 주재가 아니라 ‘기의 필연적인 자기 법칙’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氣의 자율성을 강조할수록, 理의 所以然者의 지위는 약화된다<sup>5</sup>. 이를 理一分殊說에 입각하여 본다면, 分殊에 있어서 氣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氣의 理에 대한 제약성은 강화되고, 理의 지위는 약화되어, 결국 分殊處에 理一之理가 分殊之理로서 온전히 자재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sup>8</sup>.

이에 대해 노사는 비록 理의 ‘所能然’으로서의 지위는 부정하지만<sup>9</sup>, 현상계의 필연성과 所以然은 理에 두고 있다<sup>10</sup>11). 理는 氣의 존재와 생성과 운동의 근거로 삼았고, 따라서 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過不及’의 약까지도 理에 근거한다고 하였고<sup>12</sup>, 理의 기능이 氣에 의해 현실화됨을 강조하였다. 즉,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氣이며 氣 작용의 所以然者가 理이므로 이것을 理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2) 理分圓融의 논리

－ ‘萬理는 一理에 함유되어 있고, 一理는 萬理의 실체이며, 分殊는 一理에서 나오며 본연성을 가진다.’

이전의 논의 특히 율곡학과 계열의 일관된 논리는 본원적 一理가 개별적인 分殊之理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氣의 작용때문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가 현실에서의 선악의 결정권은 氣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모든 현상은 氣의 제약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현상계에서는 理가 氣에 의하여 지배받는 결과를 받게 된다. 이는 理를 보편적 본원적 일자로 보며 순수지선한 존재로 이해하는 이상, 현실적인 개별성과 선악은 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사는 ‘理一之理’가 氣의 제약을 받아 ‘分殊之理’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理(理一之理)와 分(分殊之理)을 서로 분리(理分相離)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한다<sup>4</sup>.

노사는 ‘理分相離’의 극복으로서 ‘理分圓融’, ‘理分相涵’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리와 분이 서로 분리되는 근본원인을 “理를 분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분은 氣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 ‘理一’이 형기를 떠난 지국에 있고 ‘分殊’는 형기에 떨어진 뒤에 있게 된다”<sup>13</sup>14)라고 진단하였다. 즉 ① 理를 분이 없는 존재로 파악한 것과 ② 분은 氣에 의하여 한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理分相離’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① 이에 대한 대처 논리로서 노사는 하나이면서 나뉘어지지 아니한 적이 없고 다르면서 하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여 ‘일’과 ‘분’을 동시에 긍정하며 分限性이 一性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一과 分을 對待관계로 보고, 一에는 分殊가, 分殊에는 一이 필연적으로 함유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一理는 모든 分殊之理의 근거가 되고 一理가 分을 가능태로서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理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섭하여 만물의 ‘分殊之理’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를 정초시켜 주는 궁극적 본원자라는 점에서 萬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 노사는 分을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한정의 뜻으로 해석하고 分이 一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至微之理’이며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물에 개별자로 나타났을 때에는 반드시 氣가 分의 기반이 됨을 밝힌다. 그러나 分은 반드시 氣를 동반하지만, 氣 때문에 分

者. 何謂也. 陰靜陽動. 機自爾也. 非有使之者也’라고 하면서 ‘氣機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其機自爾’와 ‘非有使之’는 栗谷 理氣論의 주요 골간이 된다.

8) 蘆沙는 『蘆沙集』「猥筆」에서 이를 ‘理分相離’라 이르고, ‘氣가 所以然을 점령하여, 理의 지위를 빼앗아 만사의 본령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9) 『蘆沙集』「答問類編」“理只是所以然之妙 未有所能然之力也.”

10) 『蘆沙集』「答人間」“理者種子也 但有必然之妙 非有能然之力.”

11) 『蘆沙集』「答權信元 別紙」, “有此理 故必有此氣 豈有無氣之理 無此理 則氣無從而生 安有無理之氣也 有動靜之理 故氣不能不動者 是果互相動靜之乎.”

12) 『蘆沙集』「答問類編」“曰理之本然 固純善無惡 而及其乘氣流行 則不能無過不及之差也 氣不能無過不及者 亦理勢然也 而纔有過不及則惡之所有生也.”

13) 『蘆沙集』「納涼私議」“一是皆以理爲無分之物 分因氣而有限 理一離於形氣之地局 分殊墮於形之後”

14) 理分相離, 理分圓融에서 理는 ‘理一之理’, 分은 ‘分殊之理’를 의미한다.

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의 氣의 偏全을 가지고 인물을 구별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노사는 分이 임시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本然이라고 하였다. 分은 理에 의한 필연적, 본연적 존재이며 이 본연성은 理에서 나온다. 分은 理만도 氣만도 아니며 현상적인 개념인 이상 氣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氣의 모든 작용은 理의 표현이므로 分에 내포된 氣의 근거는 理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分에는 氣가 수반되지만 分은 일찍이 分이 없는 적이 없는 理의 一性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分이 氣를 동반하지만 氣 편전의 결정권의 근거는 理이므로 分은 理에 근거하게 된다고 하였다<sup>5</sup>.

3. 東武 氣稟論의 理氣論의 考察

1) 東武 氣稟論의 理氣論의 해석

(1) 人稟臟理와 人趨心慾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는 ‘사람이 품부 받는 바의 臟理’와 ‘사람이 본성을 버리고 쉽게 빠지게 되는 心慾’이 있음을 설정하고 각각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sup>5)</sup>. ‘품부받는 바의 臟理’는 太少陰陽人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되는 臟腑생성의 이치로 이를 東武는 ‘人稟臟理’로 표현하였으며,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로 제시가 되는데,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는 이를 ‘臟腑性理’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6)</sup>. ‘본성을 버리고 쉽게 빠지게 되는 心慾’은 仁義禮智의 本性을 버리고 후천적 心慾[私放逸慾]에 빠져 鄙薄貪懶人이 됨을 ‘人趨心慾’으로 표현하였다. 人稟臟理는 선천적인 요소이고, 人趨心慾은 후천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는 ‘稟’과 ‘趨’라는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은 개별적 인간이 先天的으로 품부받는 요소와 後天的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에 의

해 각각 臟局短長과 心地清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臟局短長은 ‘天理之變化’로 心地清濁은 ‘人慾之闊狹’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聖凡同異문제를 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차이에 의해 臟局短長은 ‘四臟之氣(四端)’로, 心地清濁은 ‘一心之慾’으로 발현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sup>7)</sup>.

(2) 浩然之氣와 浩然之理

東武가 理氣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浩然之氣’와 ‘浩然之理’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浩然之理는 東武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東武의 心性論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東武는 그의 사상철학을 논하고 있는 『格致藁』『反誠箴 兌箴 下截』에서 心性구조를 ‘性은 純善하고, 心은 善도 惡도 될 수 있다<sup>8)</sup>’고 하며 性은 理이고 心은 欲이라고 하여, 性理<sup>19)</sup>와 心欲을 설정하고 있다. 『格致藁』『獨行篇』에서는 ‘人性은 善하지만, 人慾은 惡하며, 性이란 慾이 순수하게 희어진 것이며, 慾이란 性이 검게 물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人性人慾의 대립구조를 말하고 있다<sup>20)</sup>. 이상에서 ‘慾’과 ‘欲’은 구별되어 사용되는데, 心欲은 ‘可以善惡’할 수 있는 기능태적 상태를 의미하며, 心慾은 ‘惡’한 요소로 性理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性理는 純善하고, 心慾은 이를 가리는 요소가 된다. 이<sup>18)</sup>는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性理의 위치를 가지는 개념으로 ‘臟理’를 제시하고 있는데, 臟局

1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2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16)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5-4 “余 生於醫藥經驗 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 壽世保元.”

1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懦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18) 『格致藁 反誠箴 兌箴下截』 3-30 “性純善也 聖人與君子 小人 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子 小人 萬殊也.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 小人 一同理於未來也. 心欲也 見在也 聖人與君子 小人 萬殊欲於見在也. 一同者 善也 一同 故易知也 萬殊者 惡也 萬殊 故難知也”

19) 기존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理와 性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理가 氣 속에 자재한 것을 性이라 한다. ‘性即理’라 하여 性은 理에 포함될 수 있으나, ‘性=理’는 아니다. 東武는 그의 저술 일부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만, ‘性理’를 합쳐 사용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性理’라 하여 합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20) 『格致藁 獨行篇』 “人性善也 人慾惡也 性者 慾之白 慾者 性之黑 摘發其慾 則其性益白 虛偽其性 則其慾益黑”

大小 형성의 원리적 측면을 제공하면서 性理의 지위를 가지고, 心慾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되는 것이 ‘臟理’임을 말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一心之慾은 臟理(性理)를 가리는 요소이며, 이를 明辨하면 浩然之理가 발출된다고 하였다. 四臟之氣는 浩然之理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요소로 이를 擴充하면 浩然之氣가 발출된다고 하였다<sup>21)</sup>. 보통은 이를 ‘浩然之理-心, 浩然之氣-肺脾肝腎’이라는 수평, 대대 관계로 해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sup>18)</sup>는 ‘浩然之理-心(中央之太極)’에서 ‘浩然之氣-肺脾肝腎(四維之四象)’으로 이어지는 수직, 순차적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心 내의 性理와 心慾의 대립구조 속에서 心慾을 밝혀 변별해내면(明辨) ‘浩然之理’가 발출하게 되고, 이것이 肺脾肝腎 四臟 속에 ‘四臟之理’로 잠재해 있다가 擴充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출되는 것이 ‘浩然之氣’가 됨을 말하고 있다<sup>22)</sup>. 물론 ‘四臟之理’는 東武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내용에서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懿德을 말하면서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四端이 肺脾肝腎으로 발출함을 말하고 있다<sup>23)</sup>. 이는 四端이라는 것이 기존 조선성리학 四

端七情論爭의 주된 관심사였던 ‘理가 발한 것’이든 ‘理가 발하는데, 氣가 따르는 것’이든 일단 理의 발현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四端 발현의 원리적 측면이 四臟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四臟之理’이며, 이는 性理의 구체화된 개념인 臟理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東武가 ‘浩然之理’와 ‘浩然之氣’ 개념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心慾의 明辨을 통한 浩然之理의 발현과 이것이 四臟속에 잠재한 것을 확충하여 ‘浩然之氣’로 구현함을 목표로 하여 性理 실천의 주체를 ‘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東武 氣稟論의 理氣관계 유주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性理는 臟理로 구현되며, 四象人의 臟局大小가 달라지는 원리적인 측면을 제공한다<sup>18)</sup>. 이에 臟理는 四象人 생성의 원리적 근거가 되는 理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臟理에 의해 형성이 되는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 관계는 理에 의해 형성이 된 氣質(體質, 氣的 요소)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선천의 臟局短長에 비교하여, 心地淸濁은 후천적인 요소의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즉 개별적인 수양의 不備로 인하여 本然의 性理를 버리고 心慾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치우침에 경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체질에 따른 차이[臟局短長の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心地淸濁 여부는 후천적 노력에 달려있으나, 그 경향성은 선천적인 기질의 다름에 근거하고, 결국 최초 性理(臟理)의 차이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氣的 요소라 평가할 수 있겠다<Table1>.

2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食儒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22) <東武의 心性論><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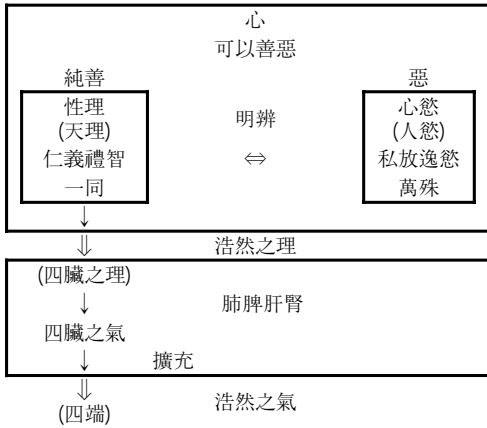


Table 1. The Analysis of Dongmu's View on Disposition in Terms of Liqi Theory

理	臟理(性理)	
氣	臟局短長	→ 心地淸濁
	↓ 四臟之氣(四端)	↓ 一心之慾

23) 『格致藁 獨行篇』 4-61-7 “... 曰 惻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 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已 若修之則皆懿德也. ....”

24) 그 구체적인 과정은 서로 다른 臟理에 의해 性情(기존 性情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의 편차가 발생하고, 이 性情의 편차는 인체 氣機에 영향을 주어 결국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東武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상을 논거로 理氣의 정의에 입각하여 그의 氣稟論을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臟局短長과 心地清濁은 理氣문제에 있어서 氣의 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臟理는 性理에 해당하는 요소로 四臟之氣, 一心之慾과 대립하여 理的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속은 ‘理=원리, 법칙’, ‘氣=질료, 에너지’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性理 또는 臟理는 선천의 臟局短長과 후천의 心地清濁의 경향성을 결정짓는 원리적 측면의 것[理]이고, 그에 의해 결정되는 臟局短長과 心地清濁의 경향성은 氣的 요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이상을 理一分殊의 개념에서 본다면 개별적 인간을 분석한 요소로 分殊상의 理와 氣라고 볼 수 있다. 즉 ‘一’의 차원이 아닌 ‘分殊’에서의 人人同異 문제를 설명하는 논리라 평가할 수 있겠다.

2) 人稟臟理의 有四不同

臟理에 의해 太少陰陽人의 臟局短長이 형성되는데 이에 대해 “太少陰陽人 臟局의 길고 짧음은 네 가지 같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로 크게 같은 바가 있으니 이는 天理의 變化에 의한 것이다. 聖인과 衆人이 한 가지로 서로 같다<sup>25)</sup>”, “太少陰陽人 臟局의 길고 짧음의 變化는 한 가지로 같은 가운데 네 가지의 치우침이 있으니, 聖인이 하늘을 바라는 까닭이다<sup>26)</sup>”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로 크게 같음’은 臟理가 天理이며 性理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는 것이며, ‘네 가지 서로 같지 않음’은 臟理에 네 가지의 치우침이 있다는 것, 즉 天理의 분과상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① 臟局短長의 차이가 ‘天理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과 ② 이에 聖凡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聖凡同]. 理의 성격을 가지는 臟理에 의해 氣의 성격을 가지는 체질(기질)이 결정되는 것으로 理는 氣에 대한 생성 및 존재의 원리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理氣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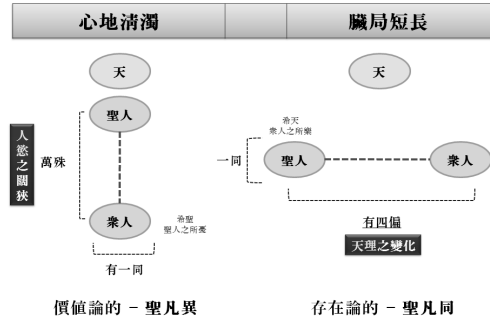


Figure 1. The Dualistic explanation immanent in Donggmu's theory on disposition

존재론적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치론적인 차이는 아님을 알 수 있다[聖凡同]. 즉 성인의 臟局이나 중인의 臟局이나 모두 네 편차가 있으나, 이는 도덕론적, 가치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 人趨心慾의 有四不同

心慾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心慾인 ‘鄙薄食懶之心地清濁’은 ‘네 가지 서로 같지 않은 중에 만 갈래로 같지 않음이 있다<sup>27)</sup>’, ‘만 갈래로 다른 가운데 한 가지 크게 같음이 있다<sup>28)</sup>’라고 하며, 이는 ‘人慾의 闊狹’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聖凡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聖凡異]. ‘만 가지로 크게 다름이 있다’는 것은 心地清濁 즉 心慾의 후천적인 가능태적 속성을 가리킴이며, ‘네 가지 서로 같지 않음이 있다’라 하는 것은 그 천태만상의 心慾이 네 가지의 현실태적 心慾으로 요약이 됨을 말한 것이다. 心慾을 理氣論의 관점에서 보면 氣차원의 것이며, 후천적 요소에 해당이 되고, 타고난 바의 性理 또는 臟理를 가리는 요소로 작동한다. 이로부터 존재론적 의미와는 다른 도덕론적, 가치론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聖凡異]. 또한 이러한 차이는 후천적인 修養의 不備로 기인함을 東武는 다른 곳에서 제시하고 있다<sup>29)</sup><Figure1>.

2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4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2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5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2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4 “鄙薄食懶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2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5 “鄙薄食懶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 所以希聖也.”  
 2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3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 而不全其天稟者 則人事之修不修 而命之傾



## 4) 東武 氣稟論의 理氣論의 특징과 문제점

## (1) 문제 1: '理의 다름(理之異)'을 제시함

東武의 '臟理'를 '性理'로 이해한다면, 이를 기존 성리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性理의 개념과 그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東武는 性理인 臟理에 다름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다름의 논리를 理氣論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같은 性理(臟理)를 가지나 氣의 다름(기질, 臟局大小의 다름)으로 인해 性理(臟理)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性理(臟理)는 氣質之性에 해당하게 되고, 氣質(體質)에 따라 性理(臟理)의 다름이 설명된다. 그런데 性理(臟理)는 四象人의 臟局大小를 형성하는 원리적인 측면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이는 결국 性理가 臟局大小를 형성하고, 臟局大小에 의해 性理가 달라지는 논리적 모순(性理의 主宰性과 原理性의 상실)에 빠지게 된다. 이를 理氣관계로 논한다면, 현상계의 차이를 氣에 두고 설명하여 理의 氣에 대한 主宰性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理 차원의 性理(臟理)부터 다르기 때문에 氣 차원의 다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理氣不相雜의 측면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性理(臟理)는 本然之性<sup>30)</sup>의 위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本然之性이 다르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理之異'의 측면 특히 氣局의 제약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설명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理一分殊說의 관점에서 본다면,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은 '一'의 단계가 아닌 '分殊' 상의 人人同異에 관한 논리이다. 즉 分殊상에서 氣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理之異'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 (2) 문제 2: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미의 분리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의 논리를 들어, 현상계의 다름을 설명하는데 '臟局短長'은 존재론적 차이를

말하지만 이에는 聖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心地淸濁'은 가치론적 차이를 설명하지만 이에는 聖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東武가 氣稟에 대해 설명하면서 理氣관계를 존재론적 측면과 가치론적 측면으로 이원화시켜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심신양면의 선천적인 차이는 理의 위치를 가지는 臟理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이에 가치론적인 善惡의 차이는 있지 않고[聖凡同], 존재론적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한편 현실에서의 善惡의 차이[聖凡異]는 후천적인 氣의 위치를 가지는 心慾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질에 따라 쉽게 빠져들게 되는 心慾이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름을 결정짓는 것은 선천적 臟理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사람에게선 선천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있고,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후천적인 가치론적 차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즉,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미의 차이를 최초 性理의 차이에 두고 있으나, 가치론적 善惡의 차이는 선천적인 기품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양의 不備로부터 발생하는 氣的 요소인 心慾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 (3) 문제의 始原

첫째, 東武가 제시한 性理(臟理)는 氣的 요소에 해당하는 四象人 臟局短長의 생성과 一心之慾의 경향성을 결정짓는 理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性理(臟理)에 '有四不同'의 다름이 있다는 것이며, 性理(臟理)가 그 원리적 측면을 담보하며 理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氣에 영향을 받지 않는 '理之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둘째, 朝鮮 性理學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理氣論을 들어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과 가치론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理가 가치론적으로 절대선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양상을 규제하는 원리적 측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항상 서로 양립하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물의 존재근거가 된다는 것은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理氣의 不相離 관계를 강조하면 존재론적 측

也 不可不慎也."

30) 理는 본래 순수한 절대선이다. 그런데 기질에 내재된 理는 氣의 淸濁에 따라 그 선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일정 부분 가려지기도 한다. 이를 '氣質之性'이라 한다. 그러나 기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理 자체의 순수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이를 '本然之性'이라 한다.

면은 효과적으로 설명하나, 가치론적 해석이 어려워지고, 不相雜의 관계에 치중하면 가치론적 의미는 확보되나, 존재론적 설명은 궁색해지게 된다. 특히 理一分殊說을 들어 설명하면서 分殊(현상계)상에서 氣의 제약성을 강조한다면 보면, 理의 主宰性和 절대성으로서의 지위는 손상되고 만다. 東武는 分殊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과 가치론적 측면을 이원화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논리는 당시의 사상사적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IV. 考 察

蘆沙와 東武의 교류에 대해서 그 동안은 단순한 교류사실만 언급되었고[1-2], 이를 기반으로 김은 “蘆沙 奇正鎮과 의 교류는 蘆沙가 사망하기 까지 계속 되었다고 보더라도, 東武가 30-40대 초반까지가 주를 이룰 것이며, 이제까지의 경서를 통한 자기의 학문, 사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巨儒 蘆沙와 유학 전반에 걸쳐 문답함으로써 자기 사상의 특수한 세계를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東武 思想 형성에 蘆沙가 기여하였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3].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적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蘆沙와 東武의 思想的 연계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는 그 동안 전무하였다. 이에 비록 東武나 蘆沙의 저작에서 직접적으로 상호간의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으나,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두 학자간의 학문적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蘆沙의 주 관심사 중의 하나는 당시 팽배해 있던 人物性同異論者 들의 理氣관계 및 理一分殊說의 논리적 맹점을 극복하는데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설명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東武는 그의 저작을 통해 四象體質論을 제시하게 되는데, 특히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人稟臟理’와 ‘人趨心慾’, 그리고 聖凡의 同異문제 등은 그의 氣稟論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된다. 그런데, 東武는 특히 『東醫壽世保元』내에서는 ‘浩然之氣’, ‘浩然之理’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그의 이론 속에서 당시 性理學의 주요 이론적

도구인 理氣論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에 理氣論의 정의 및 理氣관계론(특히, 理一分殊說)의 입장에서 그의 氣稟論을 평가하고, 東武 理氣論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蘆沙와의 학문적 연계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1. 氣質의 다름을 理의 다름으로 설명함

##### - ‘理之異’의 논리

東武는 ‘理의 다름’을 ‘氣의 다름’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理一分殊說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계(分殊)에서의 다름의 근거를 여전히 理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기존 性理學의 논리체계 속에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本然之性’의 다름, 즉 氣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理之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蘆沙의 理氣관계 설명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蘆沙는 ‘理分圓融’, ‘理分相涵’의 논리 속에서 理氣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理一分殊說과 관련 ‘一’과 ‘分殊’의 상호대대관계를 들어 理一과 分殊가 원용한 상태에 상태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기반하면 理一之理 내에 이미 分殊之理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分殊之理는 理一之理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결론으로 하게 되니, 그는 이를 ‘一이면서 일찍이 분이 없지 않고, 殊이되一에 해되지 않은 것이, 바로 理의 자연함이다<sup>31)</sup>’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면 理一之理의 의미 안에 이미 同異의 논리가 갖추어져 있게 되고, ‘다름’의 논리조차 이미 理一之理내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分殊상에서 理一之理는 그대로 分殊之理로 자재하게 되며, 氣의 통제에 의해 국한되어 그 主宰性を 상실하지 않게 된다. 이를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의 논리로 보면, 本然之性안에 이미 同異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氣의 偏全과는 상관없이 모두 本然之性의 지위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氣의 偏全과는 무관하게 그 分殊之理가 그 지위를 가진다 함은 理의 氣에 所以然者로서의 기능을 유지함을 말한다.

31) 『蘆沙集』 『納涼私議』 “一而未嘗無分 殊而不害於一者 乃理之自然”

東武의 性理(臟理)의 다름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人人同異의 문제는 分殊상의 일이고, 氣局의 영향을 받지 않고(이는 氣局에 대한 性理의 主宰性和 原理性을 의미함) 理차원의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런 논리는 바로 蘆沙의 ‘理의 주재성 및 능동성 강조’와 ‘理分圓融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추측하건데, 東武는 蘆沙의 이런 理氣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극 수용하여, 그의 氣稟論 속에서 ‘理之異’의 논리를 기반으로 그의 四象體質論을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 2.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미의 분리

蘆沙의 理氣論은 氣質의 偏全에 관계없이 本然之性 및 性善性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氣의 작용이 결코 理의 주재성을 해할 수 없고, 氣의 허물이 결코 理의 선함을 해할 수 없다는 존재론적, 가치론적으로 매우 강한 理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sup>4</sup>. 조선성리학에서의 ‘理一分殊說’에 대한 깊은 논의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理氣관계의 존재와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分殊상에서 가치론적인 차원의 절대선으로서의 理의 지위가 손상되어서도 안 되고,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개별성과 다양성의 근거 또한 理로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은 태생적인 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개별성과 다양성을 氣의 偏全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理 지위의 약화와 理氣相離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蘆沙는 이에 대해 氣의 자기원인적 능동성을 부정하고 理의 주재성 및 능동성을 강조하며, 理分圓融의 논리를 제시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존재론적 입장과 가치론적인 입장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가치론적 입장에서의 惡의 所以然조차도 理에 둔다면, 理의 主宰性은 확보되나 절대선의 지위는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다. 즉, 分殊상에서 理가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절대선의 지위를 확보

하는 데에는 理氣論이 가지는 태생적 맹점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東武는 理氣관계에 있어 존재론적인 논의와 가치론적인 논의를 이원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즉 존재론적이든, 가치론적이든 여전히 理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름의 논리는 차이가 난다. 臟局短長과 心地淸濁의 氣的인 요소의 근거는 性理에 있다. 그런데, 선천의 요소로 규정된 臟局短長の 편차는 단지 존재론적인 차이만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치론적인 차원의 편차는 一心之慾의 후천적인 수양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心地淸濁 편차의 경향성은 臟局短長の 존재론적 편차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東武가 그의 氣稟論을 설명하면서, 존재론적인 편차와 가치론적인 편차를 이원화시켜 分殊에서의 인간의 다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蘆沙의 理중심적 사고에서 ‘理之異’의 단서를 얻어 本然之性부터 다른 氣稟論을 전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존재론과 가치론을 이원화시켜 설명하는 것으로 蘆沙의 이론보다는 확대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理氣論에 대한 蘆沙와 東武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확실한 실증적 자료는 없지만, 東武가 蘆沙의 ‘理의 주재성 강조’와 ‘理分圓融’의 논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현실에서의 다름의 논리를 理에 근거하여 설명하려 했고, 이것이 그의 醫論으로 확대 발전되어 四象體質論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당시 理氣論의 맹점인 ‘존재와 가치의 문제를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해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설명방법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었다.

## V. 結 論

1. 蘆沙는 당시 ‘理의 주재성 弱화’와 ‘理와 氣가 서로 분리’되는 병폐를 진단하고, ‘理分圓融’, ‘理分相涵’의 논리를 제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 東武의 氣稟論을 理氣論으로 해석하면, 性理(臟理)는 理의 지위를 가지고, 臟局短長과 心地

淸濁은 氣의 위치를 가진다.

3. 東武의 氣稟論에서는 '理之異'의 새로운 논리가 제시되고, 이를 四象體質論의 이론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蘆沙의 理氣관계이론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4. 東武의 氣稟論에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聖凡同, 가치론적인 측면에서의 聖凡異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원화된 설명논리는 蘆沙가 理 중심적 理氣論을 통해 존재와 가치 양방면 모두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I. 參考文獻

1. 홍순용. 동무이제마전. 대한한의학회지. 1964;2(4): 1-6.
2. 이이화. 이야기인물한국사1. 한길사:서울. 1993:332-339.
3. 김달래. 동무 이제마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의학의 형성시기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0;2(1): 1-21.
4. 홍정근. 녹문과 노사의 리일분수설에 대한 이해. 동양철학연구 1998;18:253-296.
5. 최영진. 조선조 유학사상사의 양상.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177-180.
6. 송일병. 이제마 철학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의 성립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1;3(1):1-8.
7. 송일병. 동무 이제마의 학문사상. 사상의학회지. 1996;8(2):1-10.
8. Kim H, Kim DR.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Theory of the 'Qi-Pum(氣稟)'. J Sasang Constitut Med. 1998; 10(1):311-341.(Korean)
9. 송일병. 동무공의 학문과 철학사상.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
10. 오하마아키라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 서울:예문서원. 1999:149.
11. 김형찬. 理氣-존재와 규범의 기본 개념: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예문서원. 2006:48-49.
12. 진뢰 지음, 이종관 외 옮김. 주희의 철학. 서울:예문서원. 2008:81-89.
13. 최영진. 보론-성리학의 이기론과 심성론:최영진. 한국철학사. 서울:새문사. 2009:177-180.
14. 홍정근. 호락논쟁의 성립과 남당 한원진·외암 이간의 심성론:최영진. 한국철학사. 서울:새문사. 2009:188-189.
15. 奇正鎭. 蘆沙集. 한국문집총간. Available from: URL: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1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부제: 사상의학 문헌집). 서울:한미의학. 2010.
17. 黎靖德 編, 허탁, 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서울:청계. 1999:89.
18. Lee JH, Lee EJ, Koh BH. Reconsideration about the Dong-Mu's Theory of Nature and Emo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2):11-26.(Korean)